

정유산업의 과제와 영향

우리나라 정유산업은 지난 64년에 3만 5천배럴/일 규모로 시작된 이래 증설을 거듭하여 30년이 채 못 되는 지금에는 1백 67만 5천배럴/일의 정제능력을 갖게 됨으로써 세계 12위의 정제능력을 보유하게 되었다.

우리의 석유하루소비량은 대략 150만배럴 정도로서 세계 제11위의 석유대소비국이며, 하루에 이만한 양이 공급되지 않으면 우리의 일일생활이 유지되지 않는다. 이제 석유의 안정공급이 없는 우리의 생활은 상상하기조차 어려운 상태이며, 정유5사는 우리나라 1차 에너지공급의 62% 이상을 담당하고 있다.

따라서, 정유산업이 에너지기간산업으로서 우리의 경제활동과 국민생활편익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정부는 이를 건설하게 조정 육성하기 위하여 많은 심혈을 기울여 왔고, 수급안정과 가격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석유산업전반에 대하여 많은 규제와 통제를 가해왔으며, 점진적으로 규제를 완화해가고 있다.

최근 새정부의 신경제 5개년 계획은 경제전반에 대한 자율화, 개방화를 가속화시켜 유가자유화, 정유산업 신규참입 허용, 수출입 자유화, 유통부문 규제완화등 석유산업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있어 정유산업은 환경규제강화 요구와 함께 국내외적으로 커다란 변화와 도전을 맞고 있으며, 본격적인 시장경쟁, 국제경쟁체제에 돌입하게 되었다. 따라서, 2000년대의 선진국진입을 뒷받침해야 할 정유산업이 건전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생력과 국제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다.

세계각국은 지금 동서이념전쟁의 종식에 따라 자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제전쟁에 돌입하고 있으며, 강대국들의 개방압력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석유부문에 대해서도 정제업과 유통업에 대한 개방과도가 밀려오고 있다. 국가 에너지 기간산업을 타국기업



康星喆
〈석유협회 부회장〉

나아가는 방향

의 영향하에 둔다는 것은 대단히 바람직스럽지 못한 일이라 생각한다. 이와같은 중요한 시기에 우리업체가 안고있는 과제는 한두가지가 아니다. 계속적으로 증가되는 석유수요에 맞는 정제시설의 증설, 세계적인 환경규제에 부응한 청정연료의 생산공급, 2000년대 IEA회원국가입을 목표로 민간비축 30일분 달성을 위한 비축시설 확보와 효율적인 유통망 구축, 국제경쟁력 배양등 여러가지 과제가 놓여있다. 즉, 2000년대에도 계속 주력 에너지 공급원으로서의 석유의 안정적인 공급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적정 규모의 정제시설 및 저장시설등 물류시설을 확충토록 해야 할 것이며, 아울러 해외원유개발등 공급원 안정 확보에 주력해야 한다.

그리고 국내외적인 환경규제 강화 움직임에 대하여 보다 적극적으로 깨끗한 에너지의 공급과 “깨끗한 환경 만들기”를 선도하여 청정연료의 공급을 확대하고 환경에 부하를 적게 주는 신에너지의 개발등에 최대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다.

또한 국내석유산업의 개방화 또는 자유화등에 따른 외국의 메이저 및 산유국등이 국내석유산업에 진출하는것에 대비한 국제적인 경쟁력 배양으로 에너지 안보 확보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과제들을 안고 있는 정유업체가 앞으로 나아가 할 방향은 무엇인가? 우선 정부가 주도할 사안으로서 제일 중요한 현안과제는 유가관리제도의 개선으로 저조한 수익성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정유사 이윤을 철저히 통제하여 왔다. 그러나, 정부의 지나친 이윤규제는 지양되어야 하고 유가는 시장기능에 맡겨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부가 내년부터 시행을 계획하고 있는 유가연동제를 실시

그동안 정부는 물가안정을 위하여 유가인상을 최대한 억제하여 왔으며 정유사 이윤을 철저히 통제하여 왔다.

하여 국내유가를 국제유가와 환율변동에 따라 연동시키고 이어서 전면적인 유가자유화를 실시해야 하며, 정부는 정유사들의 손익정산 같은 것을 더 이상 실시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다음은 업계가 해야할 과제로서 첫째로 시설고도화를 서둘러 탈황 시설과 증질유 분해시설을 대폭 늘려야 한다.

우리나라의 시설고도화 비율은 현재 5.6%로서 일본의 22.0% 미국의 37.2%에 비해 대단히 낮은 실정이다. 시설고도화 비율을 높이면 청정연료 공급물량의 증가로 환경요구에 부응하게 되고 유류수급의 융통성과 경영효율성을 증가시켜 주는 큰 이점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너무 많은 시설자금이 소요되는 것이다. 현재 업계는 97년까지 20.3%까지의 시설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그 소요자금은 무려 4조원에 이르고 있어 자금조달에 많은 애로를 겪고 있어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요망된다.

현재 업계는 오는 '97년까지 10.3%까지의 시설고도화를 계획하고 있는데 소요자금이 엄청나기때문에 정부의 다각적인 지원대책이 요망된다.

둘째는 석유유통구조를 현대화하는 것이다.

석유의 유통은 정유공장에서 송유관이나 수송수단을 통하여 저유소, 대리점, 주유소에 이르기까지 많은 단계가 있으며, 그것도 유종별로 별도 관리하기 때문에 대단히 복잡하고 물류비용이 많이 든다. 우리의 유통구조가 대단히 취약하고 현대화되어 있지 않기때문에 유통망에 쏟아 넣고 있는 비용은 업계에 너무나도 큰 부담이 되고 있어 이를 조속히 현대화시키고 합리적으로 조정하여야 한다.

기완공된 경인송유관을 비롯하여 남북송유관이 불완전 완공단계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부분을 선박과 철도, 육로로 수송해야 하기 때문에 교통체증과 더불어 물류비용이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으며, 저유소 부지확보에 있어서도 민원문제로 인하여 많은 애로를 겪고 있다. 따라서 송유관망을 점차적으로 확대하고 주요거점에 저유소가 조속히 확보되어야 한다.

다행히 작년 7월 1일부터 실시한 폴 사인(상표표시제) 제도는 정착 단계에 있지만, 건전한 유통시장질서의 정착 및 유통현대화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장기간 고착되어온 유통마진의 현실화가 시급히 요망된다.

셋째는 우리의 석유산업을 국제화시키는 것이다.

우리는 러시아, 중국과의 수교에 이어 남북통일을 앞두고 있다. 에너지의 장기적 안정공급을 위하여 해외유전개발과 동북아·동남아 시장 진출등 상하류 부분에 적극진출하여 천연가스, 석유등 에너지자원개발과 석유제품 교류확대를 통하여 우리나라를 동북아 협력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하도록 개발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국내시장 방어전략에서 해외시장 공략전략으로 유전개발, 합작정제, 제3국으로 수출과 유통망 참여등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급변하는 동북아지역은 많은 정치, 경제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유산업이 국제화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 러시아와 중국은 산유국이면서도 정제능력이 못따르는 소비국이다. 특히 정제능력이 7만 5천배럴/일 밖에 안되는 북한에 대하여 통일과 관련하여 석유업계가 기여해야 할 분야는 대단히 클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비해야 할 것이다.

끝으로 경제의 자율화 국제화시대를 맞아 우리 정유업계는 신한국 창조와 신경제 5개년 계획을 적극 뒷받침해야 하는 사명을 갖고 있다. 내적으로 관련업계간의 균형발전과 공존공영을 기하면서 건전한 가격, 품질, 서비스경쟁으로 양질의 석유를 안정공급하여 계속적으로 산업 발전을 뒷받침하고 대국민서비스 향상에 노력해야하며 대외적으로는 국제화에 노력하여 외화획득으로 국가경제에 기여하는 산업으로 발전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

급변하는 동북아지역은 정치·경제적 리스크에도 불구하고 우리정유산업이 국제화로 도약할 수 있는 큰 시장이 형성되고 있다.